

Connect 360 성경공부

## 구원과 구속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 <학습 공과>

단 레이니 (Don Raney)  
브라이언 하버 (Brian Harbour)  
다이앤 스웨임 (Dianne Swaim)  
밥 드포르 (Bob DeFoor)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 구원과 구속

판권소유 © : 2018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성경, 1998 년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Executive Director,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David Hardage

Director, Great Commission Team: Delvin Atchison

Publisher, BaptistWay Press®: Scott Stevens

### 한국어 집필위원

구원과 구속

(1 과 ~ 5 과)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6 과 ~ 9 과) 구홍락 (미들랜드한인침례교회)

(10 과 ~ 13 과) 정경무 (서남침례교회)

총편집 담당: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8 년 6 월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구조와 구속 (학습공과)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당신이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짧은 요약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 당신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 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 만일 당신의 반원들이 모두 이메일이 있다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메일로 보내라.
3.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4. 학습공과의 내용들을 다 공부한 뒤에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교사를 위한 제안을 사용해서 당신의 반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취하고 응용하라.
5. 영어로 된 수업 보조용 프린트물들은 [www.baptistwaypress.org](http://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그외 영어로 된 자료들에 대한 무료다운로드나 도서 구입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를 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mailto: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이메일 하라.

7. 더 필요한 교사연구용 준비자료들은 1-866-249-1799 로 전화를 해서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전체 13 과 자료가 1 인용 5 불이고 5 명을 1 그룹으로 해서 20 불이다.

8. Baptist Standard 는 1 년 구독료 10 불이다. 온라인([www.baptiststandard.com](http://www.baptiststandard.com)) 으로 주문하거나 214-630-4571 로 전화해서 할 수 있다.

☞ 영어로 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은 amazon.com/kindle 에서 킨들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옆로드 중입니다).

☞ 영어로 된 오디오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로 일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하시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mailto: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 번역 및 편집 원칙

BaptistWay 출판사 책임자와의 구두적 합의하에 번역 및 편집은 필요에 따라 때론 직역, 때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의역, 어떤 경우에는 생략했음을 밝혀 둡니다. 이 원칙은 이전의 교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 학습 공간 저자들

**단 레이니 (Don Raney) :** 1 과에서 4 과를 썼다. 레이니 박사는 웨일랜드 침례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 미디 어메리카 크리스찬 대학교, 그리고 록슨 신학교에서도 가르쳤었다. 그는 텍사스 그레이험에 있는 웨스트레이크 채플과 텍사스 피터스버그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목사로 사역했었다. 그는 알라바마 대학교 졸업생 (B.A) 이고, 싸우쓰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구약학 Ph.D 를 취득했다.

**브라이언 하버 (Brian Harbour) :** 5 과에서 7 과를 썼다. 하버 박사는 Dr.Harbour 는 42 년 동안 지역 침례 교회의 목사로 일했다. 그의 목회 사역 외에도, 격월지인 브라이언 라인을 통해 목사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텍사스 리차드슨의 제일 침례 교회에서 은퇴한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비영리 단체인 *새미 나리플러스*를 통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Baylor 에서 7 년간 객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또한 달라스 침례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이앤 스웨임 (Dianne Swaim) :** 8 과에서 10 과를 썼다. 다이앤은 아칸소 주의 노스 리틀 록에서 남편 고든과 아들 데이비드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텍사스와 미시시피에 살고 있는 그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이 살고 싶어한다. 다이앤은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시설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VA 병원의 채플이다. 그녀는 Southwestern 침례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M.Div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리틀 록에 있는 제 2 침례 교회의 회원인데, 그곳에서 종종 오르간을 연주한다.

**밥 드포르 (Bob DeFoor) :** 11과에서 13과를 썼다. 드포르 박사는 켄터키 주와 조지아 주에서 40년 이상 교회 목사로 시무했으며, 은퇴하기 전 마지막 28년을 켄터키 주 해룟스버그 시에 있는 해룟스버그 침례 교회 목사로 시무했다. 밥과 그의 아내 샌디는 모두 조지아 출신이며 둘 다 텍사스 주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대학의 졸업생이다.

## 구원과 구속

	페이지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3
학습 공과 저자들 .....	5
과목 소개 .....	8
수업일	
제 1 과 _____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10
	창세기 22:1-19
제 2 과 _____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16
	창세기 37: 37:14-28, 50:15-21
제 3 과 _____	친족 구속 (救贖)자 (기업 무를자) .....22
	룻기 2:1-12, 17-23, 4:1-14
제 4 과 _____	치유와 징계 .....27
	열왕기하 5 장
제 5 과 _____	강한 목자 .....33
	시편 23 편
제 6 과 _____	환난 날의 구원 .....39
	시편 27 편
제 7 과 _____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구하고 찾으라 .....45
	예레미야 29:1-14 편
제 8 과 _____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51
	다니엘 6 장
제 9 과 _____	하나님의 구속의 묘사 .....58
	호세아 1,3,14 장
제 10 과 _____	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이— 간절한 요청 .....68
	마가복음 9:14-29
제 11 과 _____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 .....71
	요한복음 3:1-21 절
구조와 구속 (학습공과)	6

제 12 과	_____	기적적인 탈출.....78
		사도행전 12:1-19 절
제 13 과	_____	구원을 위한 간청 .....84
		빌레몬서

## 과목 소개

### 구원과 구속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용감하게 구해내는 행동을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쩌면 응급 구조사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키거나 공원 경찰이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연상되는가? 큰 재앙들을 만나서 절망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가정, 혹은 인생이 용맹하게 맞서 싸워 그들의 재산과 존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을 연상하는가? 당신은 어쩌면 다양한 종류의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에서 해방되어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진실은 우리 모두는 구원과 구속이 필요한 곳에 서있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시는 것으로서의 구원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예들로 가득차 있는데, 우리는 이번 과에서 몇 가지를 탐구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다. 이 만남의 결과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었다 : 여호와 이레 - 여호와와 의 산에서 준비된다 (창 22:14).

요셉과 그의 질투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드러낸다. 요셉은 여러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집트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기근의 시기에 그는 가족들을 구조했다. 요셉을 두려워 하며 경계하는 그의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이 설명했다 :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세상에 있는 (그리고 당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이 주제 외의 성경공부 교재들이 필요하시면 [www.baptistwaypress.org](http://www.baptistwaypress.org) 을 방문하라.

### 이번 주제를 공부하기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조하고 구속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성경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장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예는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메시지를 주신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잠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0-13)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가! 힘든 시절에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염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산헤드린으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유대인 통치기구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을 본다.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인 탄생이 필요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시작된다.

이어지는 대화는 예수께서 그 복음의 이야기에서 복음과 그의 역할을 선포하시게 한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설명해준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기초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b>제 1 과</b>	<b>하나님이 공급하신다</b>
<p><b>핵심본문</b> 창세기 22:1-19</p> <p><b>배경</b> 창세기 22:1-19</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것에 기뻐하시며 그의 구원과 구속 계획을 드러내셨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믿는가??</p> <p><b>학습목표</b>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한다.</p>

**짧은 요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도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경험했다.

몇년 전, 한 남자가 네바다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그는 낡고 버려진 가게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건물 옆에 있는 그는 우물의 손 펌프에 붙어 있는 메모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하의 광대한 샘은 넉넉한 물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사막 기후로 인해 펌프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펌프의 왼쪽에 있는 흰색 바위 밑에는 펌프를 작동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물이 병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있는 물을 먼저 마시면 안 됩니다. 약 4분의 1의 물을 손 펌프의 상단 주변에 천천히 부어 와서를 적신 다음, 나머지는 손잡이 아래에 놓고 재빨리 펌프질 합니다. 몇분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 펌프질을 하세요. 이 지하의 샘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빈 병을 물로 다시 채우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하얀 바위 밑에 다시 놓으세요.*

데저트 핏

*추신: 잊지 마세요, 물을 먼저 마시면 안 됩니다. 나를 믿고 펌프를 작동시키세요. 당신은 병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물 없이 몇시간 동안 사막을 걸어 다니다가 이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신앙 생활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를 보여준다. 종종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랑하는 것을 놓아야 한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종종 아케다 (Akedah)<sup>1</sup>라 불리는 이삭의 제물 됨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에 따라 행동한 한 남자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행동에 반응한 방식을 보여 준다.

### 최초 시험 (22:1-2)

아브라함이 75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아버지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창 12).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을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 다시 25 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낼 유일한 상속자였다.

창세기 22:1-2 에 따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의해 언급된 시간의 길이에 대한 상당한 추측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

<sup>1</sup> 아케다 (Akedah): "줄로 묶다" 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창세기 22 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말한다.

이삭이 그 당시 십대였다고 동의한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분명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수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창세기 23 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 근처의 헛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와 좋은 평판으로 발전된 상태였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평화를 깨뜨리실 때까지 삶은 좋았다. 제 1 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시는 시험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할까?

### 믿음의 반응(22:3-10)

아브라함은 전에도 그랬듯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였다. 그는 제단을 위해 나무를 모았고 여행을 위한 식량을 모았다. 그는 그와 동행할 하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독자들이 궁금해 할 일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의 신속함과 전혀 의심하지 않는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많은 의심들과 씨름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이다. 어떤 부모라도 그럴 것이고, 그런 생각과 질문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아니다. 믿음은 질문의 부재나 심지어 의심의 부재가 아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인 두려움에서 생긴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믿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다. 불확실성과 대답의 부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붙잡도록 요구한다. 5 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날들이 삼 일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에 도착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비록 그는 그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믿기로 선택했다.

이삭은 그 사흘 동안 무엇을 생각해 왔을까? 그들이 산을 오르고 있을 때, 그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 없는 것에 대한 그의 걱정을 말로 표현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칠 양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대답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독자들은 처음으로 엿보게 되지만, 과연 이 아버지가 어느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인지에 대해 독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궁금해 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색한 대화를 피하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산의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시해 준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야기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긴장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4 절에서, 작가는 한 문장으로 3 일 간의 여행을 묘사했다. 6 절을 시작으로, 그는 각각의 행동을 천천히 설명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불과 칼을 가져갔다. 그들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었다. 묘사된 각각의 행동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할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마음 속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가야 했을까?

### 초자연적인 공급 (22:11-19)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보여 주었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은 신에 대한 그의 충성보다 덜 중요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가까이 있는 덤불 속에 갇힌 숫양 한마리를 보았을 때의 그 안도감을 독자들은 오직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동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멎에 걸려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 한마리를 준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어서 그는 그 장소를 "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떠날 때 제단에 그 새 이름을 새겨 넣어서, 그 제단이 자기 자신도 기억하고 기념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배운 교훈을 남겨놓았을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교훈을 자자손손 전수했다. 14 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름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서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확신을 제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을 수 있다.

16 절에서 18 절까지는 수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재 확인을 기록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축복이 될 수많은 자손 가운데서 첫번째 아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 가면서, 쉽게 간과되지만 호기심이 가는 생략이 하나 있다. 19 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이삭은 어디 있었나? 랍비들의 전통은 이것을 주목했고 이삭이 산에 남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가 기꺼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가르쳤다. 비록 이삭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공급하심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인정하는지 보여 준다.

## 적용 및 실천

인생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본능은 운전대를 잡고 불편함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우리의 계획을 방해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질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제단 위에서 자녀를 희생하도록 명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를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항상 신뢰하는 안전한 수단들 (직업, 은행 계좌, 관계, 재능 또는 능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을 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신뢰의 단계로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라.*

## 질문

1.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희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 인식된 부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3.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행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무슨 일인가?
4. 하나님이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언제인가?
5. 하나님이 위대한 공급자라고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참고

### ■ 모리아 산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모리아 땅은 브엘세바에서 삼 일 거리에 있는 땅으로 이 내용 만으로는 모리아 땅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역대하 3:1 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 곳은 여부스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기록되었다 (삼하 24, 대하 21). 오늘날, 이 사원은 두번째로 가장 신성한 이슬람 사원의 부지이다. 코란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희생하기 위해 데려간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고 주장한다.

[끝]

제 2 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p><b>핵심본문</b> 창세기 37: 37:14-28, 50:15-21</p> <p><b>배경</b> 창세기 37: 37:14-28, 50:15-21</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서 사람이 꾸민 계획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변함 없는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실 수 있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 어떻게 그의 계획을 이루셨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어떻게 그의 계획을 성취했는지를 확인한다.</p>

### 짧은 요약

질투심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다. 몇년 뒤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들을 통해 일하신 것으로 인해, 형제들을 대면하고 용서하였다.

그것은 교회에서 진리로 가장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권유는 다음과 같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돈과 물질적 풍요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접근은 "번영" 또는 "기복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좋은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근거도 없고, 현실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번영의 복음을 듣고 매우 인기 있는 목사들이 쓴 책에서도 그것에 대해 읽는다. 이 사상은 자신의 잘못 없이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의 마음에 죄책감, 수치심,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내가 원가를 잘못한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나신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거나 더 많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야.* 이러한 사고 방식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이 땅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왜곡된 견해를 제시한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다양한 관점을 준다.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복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시기 위해 최악의 고통과 고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연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하고 사악한 행위를 축복과 구원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단순한 심부름 (37:14-17)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한 명이었으나,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었다. 야곱의 편애는 여러가지 면에서 명백했으며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형성하게 했을 것이다. 요셉은 종종 그들에게 형들이 모두 요셉 앞에서 절을 한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자라는 점점 요셉에 대한 깊은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의 마음을 모른 것 같고, 요셉을 계속 편애하고 있었다. 12-13 절에 따르면 요셉의 형제들이 양 떼를 방목할 때 요셉은 뒤에 남아 노는 것이 허용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예상보다 멀리 가 버린 것 같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했다.

요셉이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 절부터 17 절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지만, 그것들은 거의 주된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이 세부 사항을 포함시켰을까? 아마도 그는 독자들의 마음 속에 긴장감을 심어 주려고 했을 것이다.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이 야곱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간단한 심부름은 긴장감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워졌다.

## 악한 계획 (37:18-28)

18-20 절은 그 긴장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형제들의 증오는, 주로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막내 동생을 죽이고 야생 동물이 그를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커졌다. 큰 형 르우벤이 끼어들어 그를 죽이지 말고 근처에 있는 구렁이에 넣자고 말했다. (르우벤은 요셉을 나중에 구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하였다.) 형제들이 요기를 채우면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 이스마엘족 장사꾼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유다는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서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살인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그 말에 동의했고,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

이야기의 이 부분은 몇가지 주목할 만한 면이 있다. 먼저 요셉을 산 여행자들은 아브라함과 의절한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가족으로서 사촌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로,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을 없애려는 형제들의 노력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셋째, 이집트에서 요셉의 노예 생활은 여러 해 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의 노예 생활을 예시했다.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삶은 힘들었다. 이스마엘족들은 그를 한 이집트인에게 노예로 팔았다. 그 남자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 그가 거절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했고 그를 체포했다. 요셉은 이집트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창세기 39 장 21 절부터 23 절에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요셉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도관이 요셉에게 호의를 보인 것이 37 장과 49 장 사이에 언급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유일한 진술이다. 요셉의 심각한 시련을 보며,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 궁금해 할 것이다.

결국,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바로에게 그의 꿈은 이집트가 7 년 간의 기근에 직면할 것이고, 그 전에 7 년 간의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것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은 이집트를 넘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마침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 음식을 사오게 하였다. 처음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동생들을 시험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집트로 이사하도록 가족을 초대했다.

## 복수의 기회 (50:15-17)

그가 형제를 벌할 생각이 없다고 처음 진술 뒤에 (창 45:4-15) 독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뒤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죄 의식 속에 살아 왔는지를 보여 주었고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웠다. 요셉이 아버지(야곱)가 죽은 뒤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요셉이 자신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인 야곱이 말했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전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한 기록이 없고, 그 형제들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형제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노출이 된다.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세 개의 다른 단어들 (악, 허물, 죄. 17 절)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죄책감을 나타냈다.

### 은혜로운 용서 (50:18-21)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아직도 그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상심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복수를 할 의도가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안심 시켰다. 그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전에 45 장에서 언급했던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들의 악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선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수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창세기 45 장 5 절부터 11 절에서, 요셉은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비록 형제들이 요셉을 없애기 위해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배로 자리 매김하셨다.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이 형제들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게 했으며, 후대의 바로에 의해 노예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모습을 경험하게 했다. 우리의 선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최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상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마음의 소망에 따라 복을 창출하신다.

### 적용 및 실천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로마서 8:28 절의 진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시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그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시편 23 편 4 절은 선한 목자가 그의 양 떼들을 골짜기 주위로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목자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식탁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도망쳐서 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심지어 스스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를 보거나 들을 수 없을 때에도.

## 질문

1.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2.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3.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 본 적이 있는가? 뭘 했는가?
4. 중요한 잘못으로 인해 당신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한 적이 언제였나?

## 참고

### 히소스 파라오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가 그들의 권력을 매우 보호하고 외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그러한 권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 가능한 대답은 요셉이 히소스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바로들은 이집트인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가족이 속했던 셈족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기원전 2000 년에서 1500 년 사이에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시기에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 기간은 이집트가 약 1000 년 이상이 지난 후 그리스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비-이집트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았던 유일한 시기이다. 이 사실은 바로가 왜 자신의 제 2 인자로서 셈족의 동료를 갖는데 그렇게 개방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히소스 왕조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전복 시키고 히소스의 바로를 이집트에서 추방하기 전까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 용서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감정이 상한다. 용서는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이 진리들을 기억하라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감정이 상한다. 용서는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다치게 한다.
-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용서의 결핍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 (마태복음 5:23-24, 6:14-15).
-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에게 행해진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

**[끝]**

<b>제 3 과</b>	<b>친족 구속 (救贖)자 (기업 무릎자)</b>
<p><b>핵심본문</b> 룻기 2:1-12, 17-23, 4:1-14</p> <p><b>배경</b> 룻기 1-4 장</p>	<p><b>학습주제</b>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p> <p><b>탐구 질문</b>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p>

**짧은 요약**

남편이 죽은 후,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보아스와 만난다. 법적으로 구속력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는 룻의 친척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분열된 세상에 산다. 사실 수 천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계속해서 인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이데올로기,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경제, 국적, 신학,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거주 상태 등을 바탕으로 구별의 선들이 그려진다. 이러한 구별은 편견, 배제, 억압, 박탈감, 심지어 대량 학살까지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슬프게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두꺼운 선을 그리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서 최종적 권위로 갖고있는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는 성도들을 능동적으로 벽을 허물고, 지우고, "우리 대 그들"이 없는 가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환영하도록 요청한다.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어휘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자리에 없어야 한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의 포용성을 아름답게 묘사 한 것이다. 기업 무를자의 역할을 받아 들인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날의 법과 관습은 룻의 시대와 다르지만, 우리는 친족 구원자로서 "가장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에 초대함으로써 반응해야 한다.

### **룻이 기업 무를자를 만나다 (2:1-12)**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중앙 지도자가 없었을 때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난다. 부족들이 종종 함께 일했지만 법은 지역 차원에서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기근으로 인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요르단 강 동쪽에있는 모압 땅에 이사해서 살게했다. 모압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먼 친척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대했다 (민수기 22 ~ 25 장). 그곳에 있는 동안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그 중 한 명은 룻이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기근이 끝난 후 나오미는 유다에있는 그녀의 집에 돌아 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지만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갈 것을 선택했다.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적인 충성은 룻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군주제 이전에 유다에서 과부와 외국인인 된다는 것은 룻이 법적 보장과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더 큰 이야기는 남성 친족-구속자 (기업 무를 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룻의 충실함은 그녀를 그 행동의 수혜자로 놓았으며, 친절한 행동은 한 지역 사회의 회원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정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차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 것을 통해 과부와 외국인 (심지어는 적)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룻기 2 장 1 절에 따르면,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가 상당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신체적 힘에 대한 진술이거나, 혹은 유다 땅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반관적(半官的)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또 자기가 직접 가서 추수를 감독하고, 들에서 일하는 고용된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로 인사하였다.

룻은 보아스가 나타난 동일한 들판에 이삭을 줌고 있었다. 이삭을 줌는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이 밭의 가장자리와 수확기에 의해 남겨진 어떤 곡물을 모으도록 허락 한 법의 조항이었다 (신명기 24:19-22). 작가는 룻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그가 이삭줍기를 하고있는 들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가리키지 않는다. 보아스는 룻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꾼들 중 한 명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5 절).

그는, 룻이 그의 친척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에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들판에서만 이삭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녀에게 안전과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을 보장해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일꾼들이 물을 끌어 오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관대함에 압도당한 루스는 왜 그 가 이방인인 그녀에게 그런 호의를 보이는지 물었다. 보아스는 바로 그녀가 나오미에게 보여 준 호의와 사랑과 충성심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룻이 가족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여행함으로써 겪은 위험을 깨달았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함께 룻의 보답으로 하느님을위한 대리인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동은 한 젊은 과부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친척임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룻이 이 관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 룻이 그 기업 무를자에 대해 말하다 (2:17-23)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 왔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무엇을 모았는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양의 곡물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룻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이야기에서 그녀의 신분 (모압인, 혹은 며느리)을 나타내는 문구가 구절에 직접 첨부된다. 작가는 분명히 독자들이 룻이 이방인이고,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의 행동과 그녀를 위해 수행된 행동 모두를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룻은 나오미의 질문에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은 그의 이름을 보스다라고 하였고, 나오미가 곡식을 충분히 가져 올 수 있도록 자기의 일꾼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삭을 주으라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독자들은

나오미가 그 이름을 듣고, 루스가 모르게 가까운 친척의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룻이 구속되다 (4:1-14)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3장에서 신중하게 나오는데, 이는 나오미가 루스에게 추수가 끝난 것을 축하하는 시간에 그의 타작 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관심을 끌도록 격려한 것이다.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정확한 본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그의 밭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말에 대한 성경의 안과 밖에서 발견되는 용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주장한다.

무슨 일이 있었든, 3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있었던 보아스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그에게 기업 무를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녀에게 확인 해주었지만, 그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첫 번째 기업 무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성 문으로 가서, 그 친척과 장로들을 만났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가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행해지고 목격된 모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렸다. 그리고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렸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거절하였고,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성읍 장로들은 이 합의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내리셔서 많은 자손을 내려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이 선언은,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룻 4:17).

### 적용 및 실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반문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라고 대답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룻은 사랑과 충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희생했다. 보아스는 과부가 된 이방인에게 엄청난 관대함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는 "형제"가 단지 자신과 닮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의된 교회는 다양한 가족이며,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면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 (마 28:19)로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차별 없이 복음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 질문

1. 하나님께서 어떻게 슬픔 가운데 있는 당신을 건져주셨는가?
2. '기업 무를 자' 로서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꼭 가족이나 친척일 필요는 없다).
3.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업 무를 자로서 돌볼 수 있는가?
4. 사람들 사이의 장벽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 참고

#### 과부, 고아, 노예, 그리고 이방인 (외국인)

고대 이스라엘의 법들이 다른 국가들의 법들과 다른 첫 번째 중 하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였다. 출애굽기 21 장의 십계명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법은 노예들의 처우를 다루었고 그들에게 상당한 보호를 제공했다. 이후에 신명기의 법들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의 폐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 15:12-18 은 노예를 "형제"라고 부른다).

토라 (율법)에서 과부와 고아들은 종종 특별 보호를 받을 사람으로 언급된다 (출 22:22, 신 10:18, 16:11-14, 24:19-21).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이 이웃 국가들의 법과 다른 점은 외국인과 낯선 사람들에게 확장된 조항과 보호였다. 신명기 24 장 19 절에서 22 절에는 과부와 고아가 이삭줍기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대하 듯 사랑하라고 지시한다.

#### 고엘의 역할

율법은 친족 구속자 (히브리어 용어, 고엘), 즉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을 잘 확립했다. 레위기 25:25-26 과 47-49 에는 땅의 구속 (贖)에 관한 법이 요약되어 있다. 그 법은 농촌 사회에서 재정적 안정의 수단인 토지가 가족 내에 머무르도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신명기 25 장 5 ~ 10 절은 자식이 없는 과부의 구속을 묘사한다. 이 법은 가족의 땅을 상속하고 가족의 성 (姓)을 유지할 상속인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 [끝]

제 4 과	치유와 징계
<p><b>핵심본문</b> 열왕기하 5 장</p> <p><b>배경</b> 열왕기하 5 장</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는 부상당한 한 전사를 치유하셨고, 부정직한 한 종을 징계하셨다.</p> <p><b>탐구 질문</b>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분별하기.</p>

**짧은 요약**

한 시리아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기적으로 치유받았다. 엘리사는 보상을 거절하였지만 그의 종이 엘리사 몰래 그것을 나아만에게 요청하고 받다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 모두는 끊임 없는 변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의 순간부터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1 차적 자기 방어 라인을 구성하고 진실에 대해 다양한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잊어 버렸어." "내 개가 숙제를 먹어버렸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은 "변명을 잘 하는 사람이 어느 것에도 좀처럼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변명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약점이나 잘못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영향력 있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그 자존심이 그렇게 빨리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다.

오늘의 성서 구절인 열왕기하 5 장에는 자존심에 직면한 두 명의 이질적인 남자에 대한 두 개의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다.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모든 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지위와 특징들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며,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자존심에 따라 행동하고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동반자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자존심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 나아만의 문제 (5:1-7)

그의 시대 동안에, 나아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린 시리아 소년들의 역할 모델이었다. 그는 군대를 지휘했고 왕에게 높은 인기를 얻은 용맹한 사람이었다. 1 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 이교도 시리아 장군에게 성공을 안겨 주었다. 나아만이 그것을 인정했든 아니든, 하나님은 이 장에 묘사된 이야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그의 삶에 활동하고 계셨다.

나아만은 그의 탁월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고생했다. 이 질병이 나아만의 활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존재였다. 나병은 신의 형벌로 간주되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환자와의 접촉을 피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신 승리 중 하나가 아합 왕의 패배였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대 역사 학자 요세푸스는 나아만이 아합을 죽인 무명의 궁수 였다고 (열왕기상 22:34) 주장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아만의 아내의 하인이 될 어린 소녀를 체포하고 그 하녀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촉발시켰다.

시리아군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아만은 당시 최고의 의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도울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지만, 나아만이 그녀의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더 놀라울 것이다. 모든

것을 시도했던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한 땅에 사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비록 나아만은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금방 자신의 자부심과 이해력 부족을 드러냈다. 우선, 그는 많은 양의 금, 은, 그리고 옷을 실은 몇 대의 전차를 실었다. 이 접근법은 그의 부와 중요성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치료법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나아만은 그 노예 소녀가 예언자를 가리켜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예언자가 왕의 궁전에서 왕을 섬긴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행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나아만의 인상적인 도착을 목격한 여호람 왕 (이 이야기에서는 이름이 없음)은 자기가 이 장군을 도울 수 없으면 시리아 왕이 공격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 **엘리사의 해결 (5:8-14)**

엘리사는 왕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아만이 그에게 와야한다는 말을 전했다. 나아만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나아만이 따라 오도록 지시하는 종을 보냈다. 나아만은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씻어야 했다. 지시 사항들과 전달 방식 모두 나아만의 자존심에 불쾌감을 주었다. 그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인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는 수 많은 군중에 의해 존경 받는 군대 지도자였다. 그는 우대받는 치료에 익숙했다.

나아만은 선지자의 마술적인 말과 독특한 의식을 통한 큰 대중적 쇼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에, 더러운 요단 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왜 더러운 강에서 목욕을 해야하는지 물었다. 그것이 전부라면, 훨씬 멋있게 보이는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바르발에서 씻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나아만의 지위와 고국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고, 결국 지시 사항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 가기로 결정했다.

그가 떠날 때, 이 이야기에 무명의 또 다른 등장 인물이 말했다. 그의 종들 중 하나가 나아만을 설득했다. 그는 지시의 단순함을 주목했다, 즉 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 종이 나아만에게 물었다. 만일 엘리사가 그에게 큰 일을 하라고 시켰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선지자가 하라고 시킨 것을 따라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14 절은 나아만이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지시 한대로 했다고 진술한다.

본문에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자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 났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것은 매 세척마다 점진적이었을까? 나아만은 일곱 번째 씻은 후에 비로소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섯 번까지 몸을 씻은 후 좌절해서 그만 두었다면, 그는 단지 물에 젖은 나환자일 수 있었다. 그는 교만을 버리고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가 일곱 번째 씻은 후 물에서 나왔을 때, 나병은 사라졌다.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난 후에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치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대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 **나아만의 반응 (5:15-18)**

치료를 받은 후에도, 나아만은 여전히 치료법을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시리아에서 가져온 모든 보화를 그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것을 거절하였다. 독자들은 엘리사가 왜 그렇게 후한 선물을 거절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비록 그 본문이 엘리사의 동기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는 16 절에 나오는 그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나아만은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일을 겪었다. 그는 유일하신 진정한 신을 인정했다 (15 절). 그리고 17-18 절에 나오는 그의 요청은 그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영적 헌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가 흠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한 요청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관습은 한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땅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고대의 믿음과 일치했다. 엘리사에게 "앞으로 있을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이 요청한 것으로 간과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게하스의 문제와 징계 (5:19-27)**

엘리사의 종들 중의 하나인 게하시는 엘리사가 어떻게 재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생각은 그의 교만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최근 이스라엘을 전투에서 패배시킨 시리아인들에 대한 그의 반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그 패배에 대한 대가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았을 것이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게하시는 나아만을 따라가서, 엘리사가 그에게 보낸 선물의 일부를 요구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엘리사가 예브라임의 산지로부터 온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관대하게 게하시가 요구한 것의 두배를 제공하고, 게하시는 그 돈을 받아 자기 집에 숨겼다.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였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돈을 챙기려고 나아만을 따라간 것을 안다고 말하였다. 별로서,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은 나병을 앓게 되었다.

### **적용 및 실천**

나아만 사령관과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는 둘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아만의 자존심은 그가 왕의 군대에서 신뢰 받고 총애 받는 사령관이라는 위치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느낌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게하시의 자부심은 그가 적에 대한 권력 의식을 느끼는 상황에 달려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느낌을 알고 있다. 적이 굴복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자존심을 다르게 다루었다. 나아만은, 비록 마지못해 일지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간단한 지시를 따랐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 나아만은 치료를 받았고 참된 하나님을 찾았다. 게하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

## 질문

1.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아픔을 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 당신의 자존심을 어떻게 다룹니까?
4. 당신의 삶 속에 “나병”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참고

### 성경 속의 나병

현대 의학 덕분에 우리는 나병이 특정한 의학적 질환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에 나병이라는 용어는 종종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질병 중 하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고통스럽고 궁극적으로 치명적이었던 반면, 그 질병의 눈에 보이는 특징들은 개인을 사회의 왕따로 만들었다. 나병은 성전 지역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했고 다른 이들이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구약 시대에, 그 병은 하나님에 형벌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신약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지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종종 위반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떠한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도 우리의 연민, 보살핌, 또는 접촉 밖에 사람을 두지 않는다.

### 자존심 다루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존심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문제이다. 사람마다 자존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을까? 다음은 몇 가지 제안 사항이다.

-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을 하되, 그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마 23:11).
- 영적인 스펙을 늘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라 (마 5:3)
-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비웃는 법을 배우라 (고후 12:10)
-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약 4:10).

[끝]

제 5 과	강한 목자
<p><b>핵심본문</b> 시편 23</p> <p><b>배경</b> 시편 23</p>	<p><b>학습주제</b>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p> <p><b>탐구질문</b>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로 드러내시는지 발견하기.</p>

#### 짧은 요약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수세기에 걸쳐 대관식과 왕실의 결혼식을 주관하는 런던의 고딕 양식의 교회로 알고 있으며, 몇몇 영국 군주의 매장 금고도 들어 있다. 게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다른 곳에 묻혀 있는 저명한 지도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다. 이들 중 존경 받는 사람 한 명은 형제인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화이트 필드와 함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다. 존 웨슬리의 가장 심오한 세가지 말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그의 기념비에 있다. 그 중 하나는 그의 주장이다. "나는 모든 세상을 나의 교구로 본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묻으시고, 그의 일을 계속하신다" 라고 격려를 주는 말이다. 웨슬리 기념관에 또 하나 새겨져 있는 글은 그의 죽음 직전에 말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본 공과를위한 본문에서 근본적인 성경적 진리를 포착했다. 다른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을 인식하고 (시편 113:5), 하나님의 거룩한 타자성을 인정했지만 (시편 99:3), 시편 23 편에서 다윗은 신학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내재라고 주장하는 것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다만 저 위에, 혹은 초월해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바로 이곳에 계신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와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인으로 묘사했다.

첫 번째 행에서 다윗의 묘사에 주목하라. 그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하였다. 그의 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나 친밀하게 알고 있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님은 "어떤" 목자나 혹은 그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하나님을 보호자이자 공급자로서 경험했다.

###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23:1-4)**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시편의 첫 말을 알고있다. 수세기 동안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상실감 속에 황폐화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시편은 어려운시기를 겪고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와 관련이 있다. 이 시편은 1 절의 마지막 구절에 담긴 일반적인 약속을 제공한다.이 약속은 주일학교의 한 어린이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라네." 라고 번역한 노래 속에 나타난다.

고대 극동 지역에서 한 목자가 양들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아침 5 시가 되면 목자는 이미 그의 양 떼를 방목하기 시작했다. 10 시가 되어, 해가 그들을 내려 쬐기 시작했을 때, 양들은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목자는 그들이 무더울 때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풀밭에 눕게 했다. 누워 있는 동안 양들은 먹지 않았다. 이러한 자세는 그들에게 더위를 식히고 음식을 소화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 다음 양들은 마실 준비가 되었다. 양들은 움직이는 물줄기에서 물을 마시 것을 두려워한다. 시편 23 편에 묘사된 목자는 잔잔한 물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는 개울에 작은 댐을 세워, 잔잔한

물속에서 양들이 마시게 했을지도 모른다. 목자는 양이 필요로하는 모든 양분을 사랑스럽게 제공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목자는 양을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했다 (23:2).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서 양들은 풀이 부족하고 음식이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다시 한번, 목자는 그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없다. 시편 23 편 의 목자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함으로써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 주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문구는 목자가 양들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동기를 얻어 양들을 적절하게 돌본 목자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길을 따라 사랑스럽게 인도하여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을 막았다 (23:3).

때때로 양들은 갈라진 틈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따라 이동한다. 설상가상으로, 야생 동물들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양들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다. 어린 목자였던 그의 경험에서, 다윗은 "푸른 풀밭" 과 " 잔잔한 물" 뿐만 아니라 그의 양무리들을 위협하는 위험도 기억했다. 이 시기에, 목자는 그의 막대기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과 싸우며 방어했고 그의 지팡이로 갈라진 틈으로 떨어진 양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렸다. 위험한 길도, 포식 동물도 그의 책임감에서 그 목자를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대신, 목자는 양들을 보호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23:4).

이 시편 기자에게 목자와 그의 양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은유를 제공했다. 목자의 은유로 다윗은 충실한 목자가 그의 양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가 먹을 것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 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그에게 이끄는 길로 인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동안 그는 우리 옆에서 걸을 것이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목자와 같다.

우리는 종종 갱신이 필요하다. 때때로 우리는 피곤해서 회복이 필요하다. 옛날의 시계처럼 태엽을 감을 필요가 있다. 비극이나 실망이 우리의 영혼을 부숴 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갱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외롭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 죄책감이 우리를 맥을 못쓰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 할 때, 죄책감은 죽음의 손길로 우리 영혼을 차게하고, 우리는 삶을 대면할 수 없다고 느낀다. 시편 23 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깜박 거리는 삶의 빛이 꺼져갈 때에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주인 (23:5-6)**

다윗은 5 절에 새로운 은유법을 도입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한 주인이었다. 목자의 형상과 같이, 인자한 주인의 모습도 이 찬송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화려한 호텔들은 고대 세계의 길가에 산재해 있지 않았다. 대신에, 한 개인의 집에서 음식과 환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고 (23:5), 덕망있는 주인들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필수적인 인물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인자한 주인은 손님의 발을 씻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그러한 공급은 주인의 환대를 반영한다.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그 식사는 더욱 친절함을 보여 준다.

오늘날까지도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친절한 주인이 제공하는 풍부한 공급을 암시한다. 시편 23 편에서 은혜로운 주인에 대한 묘사는 주인이 손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고도 남았다는 것을 전달했다. 손님이 집의 신성함을 즐기는 동안 구경꾼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관찰은 아마도 그가 "원수"라고 언급했을 때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주인의 이미지를 깊이와 시간으로 폭 넓게 확장한다. 대접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그 사람은 이제 그 집에 거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기 때문이다 (6 절). 그리고 이것은 주인이 대접하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잔치가 아니다. 오히려, 주인의 테이블에 앉은 그 손님은 "영원히" 주인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 영원히 제공해 주시는 인자한 주인이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불평하며 평생을 보낸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 쓰레기 수집가가 그의 카트를 인도를 따라 밀면서 그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했다. 그는 산책로를 쓸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외쳤다."맥주병 있습니까, 부인?" 그녀는 인상을 쓰며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감히! 내가 맥주를 마시는 그런 여자 같이 보이나요?" 수집가는 고개를 구부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래된 식초 병들 있나요?"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식초만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입으로는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라. 우리는 생명의 선물, 친구들과의 기쁨, 그리고 봉사를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다윗이 그랬듯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셨다.

## 적용 및 실천

이러한 목자와 주인의 비유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성경의 첫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스스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여 가장 필요로 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 46:1) 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은 채로 그의 일을 완성하시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19)

이러한 은유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목자가 양을 튼튼하게 해 줄 것만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시편 기자의 현실주의는 오늘날 강단에서 종종 설교되는 "건강과 부귀를 위한 복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친숙한 찬송시에 나오는 은유들은 어째서 수세기에 걸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에 평안을 얻기 위해 종종 시편 23 편으로 눈길을 돌리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 질문

1.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대해 묘사할 때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나?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2.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3. 어떤 현대의 은유가 "목자"와 "주인"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시편 기자가 제공한 동일한 약속을 포착해주는가?
4.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때를 확인해줄 수 있는가?
5. 당신이 이 시편의 약속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참고

###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기자는 목자가 그의 양을 돌보는 데 사용했던 두 가지 도구, 즉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언급했다 (시 23:4). 성서 필자들이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사야 10:5, 요한계시록 11:1)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대상을 묘사한다. 막대기는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처벌에 사용되는 무기다 (시 89:32). 양치기는 위협적인 뱀이나 다른 포식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무기를 사용했다. 역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이 떨어진 틈에서 양들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목자는 또한 양들을 세는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목자는 모든 양들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양들의 수를 세서 빠진 양들이 없는지 확실하게 했다 (에스겔

20:37). 목자는 양들이 지팡이 밑을 지나갈 때마다 주께 바칠 제물로 양을 선택하기 위해 양을 세었을지도 모른다 (레위기 27:32).

끝

제 6 과	환난 날의 구원
<p><b>핵심본문</b> 시편 27 편</p> <p><b>배경</b> 시편 27 편</p>	<p><b>학습주제</b>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다.</p> <p><b>탐구질문</b>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할 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p>

**짧은 요약**

비록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기도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2002년에 제작된 Snow Dogs 라는 영화는 눈썰매를 끄는 일곱 마리의 시베리아 허스키와 “나나”라고 불리는 한 마리의 보더 콜리(Border Collie)를 상속받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치과 의사 테드 브룩스(Ted Brooks)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알라스카의 톨케트나(Tolketna)로 여행을 떠난다. 이때 연속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그는 개들을 데리고 달리다가 썰매에서 떨어져 눈 속에 파묻힌다. 그가 일어나서 눈을 털어내고 있는 순간 커다란 회색 곰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곰을 피해 도망하려던 그는 낭떨어지에서 굴러 바위 위에 떨어진다.

브룩스가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무렵, 바위가 쪼개지며 다시 가파른 언덕에 내동댕이 쳐진다.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뒹굴며 나무들 사이를 휘휘 지나다가 결국 멈춘다. 하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을 무렵 자신이 호수를 덮고 있는 얼음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호수가로 기어가는 순간 얼음이 여기 저기서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위에 가까스로 기대어 있을 때에 얼음이 서서히 물 속으로 잠기게 된다.

브룩스는 급하게 911으로 전화를 걸지만, 사람의 음성 대신에 녹음된 소리가 들려온다: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셨습니다. 확장된 서비스 플랜을 원하시면 업무 시간에 다시 전화 주세요.” 닥터 브룩스의 경험은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욥기 14:1)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고통은 종종 그의 시편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어떤 애가의 시들은 고통을 유발한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다른 시들은 다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통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 다룬 본문은 애가의 시이다.

### 다윗의 선포 (27:1-6)

다윗은 시편 27편을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다. 그는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했다 (27:1). 먼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불렀다. 성경에서 어둠은 영적 무지 (이사야 9:2), 고난 (요엘 2:2), 그리고 죽음을 (욥기 10:2)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어둠은 또한 악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 (에베소서 5:11). 빛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깨달음, 구원, 생명, 그리고 윤리적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심으로 어둠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대적하신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불렀다. 신약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다 (27:1). 이 단어는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견고한 요새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다윗은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악인들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멸하기 위해 공격을 쏟아 부었다 (27:2). 또 한편으로, 대적의 군대가 그를 둘러 싸고 있었다 (27:3). 우리는 이와 비슷한 다윗에 대한 공격의 예들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만일 이 시편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쓰였다면, 그 자세한 기록을 삼하 15 장과 16 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적들 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27:4). 다윗은 비유적으로 “여호와와 그의 집”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예배의 처소에 영원히 거함으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 시편의 또 다른 저자도 이와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다윗이 언급한 “성전”은 다윗 이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막을 지칭했을 것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인지를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했다 (27:5). 그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은신처를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을 “요새”로 (27:1) 표현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분의 장막에 숨겨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집안에 두고 보호하는 그림을 떠올린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를 찾는 대적들이 자신을 붙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고 고백한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27:6). 떨구어진 고개와 늘어진 어깨는 패배와 좌절을 상징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자부심으로 다윗의 고개를 높이 들게 하셨다.

다윗은 공격적인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응답한다 (27:6).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배에의 참여와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비슷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시이다” (시편 59:16).

### 다윗의 기도 (27:7-12)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그의 믿음을 확고히 했다. 신뢰는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갈등과 실망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 시편

27:1-6 에서 다윗은 그의 삶을 대표하는 신뢰의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준다. 시편 27:7-12 에서는 그는 이러한 신뢰가 불확실성과 소망이 얽혀진 가운데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 지 그 과정을 묘사한다.

한편으로 다윗은 기도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다윗의 이러한 감정은 9 절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등의 구절과 12 절의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 등에 잘 드러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을 실망시키셨음을 드러내며, 또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 전체를 통해 소망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그의 부모가 그를 버릴지라도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한다 (27:10). 그의 기도 전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과 소망 사이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다윗이 일관성이 없다고 정죄하기 보다 그의 정직함을 칭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소망이 함께 만나는 것을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모세는 종종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지를 의심하기도 했다 (민수기 11:21-23). 우리는 욥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라고 한탄했다 (욥기 9:17).

예레미야만큼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영적 침체 가운데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예레미야 15:18). 심지어 예수님도 절망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절규했다 (마 27:46). 다윗이 자신의 불신을 드러낸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화를 주고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다윗은 이러한 긍정적인 확신을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낸다.

### 다윗의 관점 (27:13-14)

다윗은 그의 삶의 철학을 13 절에서 강력하게 요약했다. 이 선포는 그의 믿음의 간증이다. 삶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호와와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27:13). 아마 다윗이 “여호와와 선하심”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과들을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다윗은 신명기 6:11 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축복을 표현하는 한편, 시편 25:8-10 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다. 다윗이 “여호와와 선하심”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든간에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시편 27:14).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육체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힘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갔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없이 맞이할 수 있었다.

## 적용 및 실천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다윗의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형성되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이다. 다윗이 얼마나 자주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지를 보라. 열 두번 가량이나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

또한,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 여호와를 그의 빛이시며 산성이라고 선포한 것은 그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여러 번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들을 공급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제공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 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다윗이 이 시편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 이러한 어려움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가?
2.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말해 보라.
3. 인생의 불확실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과거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말해보라.

## [참고]

### 시편

시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시편이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어떤 시들은 애도의 시로서 시편의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찬송의 시는 시편 기자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열 한편의 시는 왕의 시에 해당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지혜의 시는 인생을 위한 지침을 전달해 준다.

비록 모든 시편이 어떤 한 범주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명칭들은 각각의 시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시편 27은 애도의 시에 해당된다. 시편 기자는 위기의 상황을 표현한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맺는다.

### 기도에 관한 기초적 진리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들:

-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 때로 그 응답은 "Yes"가 되기도 하고, "No"가 되기도 하며, "Wait"이 되기도 한다.

## [끝]

<b>제 7 과</b>	<b>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구하고 찾으라</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예레미야 29:1-14 편</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예레미야 29 편</p>	<p><b>학습주제</b>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p> <p><b>탐구질문</b> 미래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법을 배운다.</p>

**짧은 요약**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현실이 비록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에 축복과 소망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옛 우화의 한 이야기이다. 하루는 진실이 수영을 하러 갔다. 진실이 물에 있는 동안에 거짓이 진실의 옷을 가져가고 자신의 옷을 대신 남겨 두었다. 하지만, 진실은 물에서 나왔을 때에 거짓이 남긴 옷을 입고 싶지 않았다. 이 우화로부터 오늘날 “벌거벗은 진실” (*the naked truth*)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발견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접근 방식을 잘 시사해주는 표현이다.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이 잠시 동안만 그곳에 있을 것이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이년 안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28:3, 4). 하나냐의 이와 같은 거짓된 예언은 “진실이 없어지고” (렘 7:28)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렘 9:5) 당시 유다에 만연한 풍토를 잘 반영해 준다. 예레미야는 거짓의 옷을 입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시 이러한 풍토를 거부한 것이다. 대신 그는 벌거벗은 진실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 배경 (29:1-3)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로 등장했을 때에는 세 나라가 세상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이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한창일 때에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는데 먼저 주전 612년에 앗수르를 멸망시켰고, 주전 605년에 이집트를 멸망시켰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유다는 악하고 약한 지도자들의 지배로 인해 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유다의 멸망은 약 50년 동안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했던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된다 (왕하 21:9). 므낫세는 사악하고 무자비한 자로서 유다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 갔고, 그 이후의 왕조들도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는 성전이 파괴되고, 왕이 제거되며,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힐 것을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유다를 휩쓸고 그 땅을 정복하며 유다의 지도자들을 추방시켰을 때에 성취된다 (렘 29:1).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침략 당시 유다를 다스린 왕은 여고니야였다 (29:2). 그는 여호야קים의 아들로 18세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였다 (왕하 24:8). 그가 왕이 된지 삼개월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요구를 거부하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를 퇴위시켜 버렸다. 느부갓네살은 또한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약 10,000명 가량의 유다 주민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들였다 (왕하 24:14).

이때 유다의 선지자들은 사로잡혀 간 자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유다의 포로 생활이 짧을 것이며, 사로잡혀 간 자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거짓된 약속에 대하여 사로잡힌 자들에게 명확한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가 여고니야에 이어 유다의 왕 위에 오른 시드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그 편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엘라사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지만, 그마라는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참모로 섬겼다는 것을 안다 (렘 36).

예레미야의 편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왕이 자발적으로 그의 편지를 포로된 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지혜와 용기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동의하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로잡힌 자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일에 대하여 “벌거벗은 진실”을 말한 것이다.

또한 이 편지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셨던 두 가지 차원의 사명의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렘 1:10). 그의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이중 두 가지를 언급한다 (“파괴하며”와 “뽑고”).

### **하나님은 유다를 파괴하실 것이다 (29:4-9)**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들에게 그들의 포로 생활이 장기간이 될 것이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 (29:4). 결국,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임시로 짐도 풀지 않은 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정착에는 그들의 모든 생활, 곧 주거지와 식량, 그리고 가족의 삶 등이 모두 포함된다 (29:5-6).

그들이 추방당한 땅에서 살아야 기간이 적어도 70 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9:10), 사로잡힌 자들은 임시 처소가 아닌 영구적인 집을 지어야 했다. 또한 앞으로 먹을 식량을 위해서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야 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양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선지자는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번성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라고 권면했다.

예레미야는 또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 땅의 정복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거나 그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시한다 (29:7). 오히려, 그들의 새로운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위해 주께 기도하라고 말했다.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정복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벨론의 번영을 위한 기도는 곧 그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정복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레미야의 지시는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고 믿었기에 전통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저주의 기도가 실린 시편 137 편을 들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우하는 것을 명상한 후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처럼 선포한다: “네 어린 것들을 [바벨론의 어린이들]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이다!” (시편 137:9).

또한, 포로된 자들은 바벨론에서 여전히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들중 어떤 이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시편 137의 다음과 같은 시인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4).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치밀함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또한 사로잡힌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했다 (렘 29:8-9). 특별히, 포로된 자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왔기에 그러한 거짓 예언에 속기 쉬웠다.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왔다. 그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완벽한 목표물이 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말아야 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기에 그들에게 짐을 풀고, 새로운 집들을 짓고, 가족을 형성하며, 그들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권면했다.

### **하나님은 유다를 뵈으실 것이다 (29:10-14)**

예레미야의 경고는 포로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포로된 자들은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9:10). 7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만일 70년의 기간을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당한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70년은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주전 516년이 된다 (스가랴 1:12; 에스라 6:15).

하지만, 70년을 바벨론이 주전 608년에 느부갓네살의 지휘 아래 첫번째로 유다를 공격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레스가 포로들이 귀향하도록 칙령을 내린 주전 538년이 70년의 마지막 해가 된다. 어떤 학자들은 70년이 단순히 긴 시간 또는 당시의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해석함으로 특정한 날짜를 정하려는 노력을 피하기도 한다.

“70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사로잡힌 자들의 미래는 그분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렘 29:11).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그분의

백성들의 응답에 달려있다. 진심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정적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열정적 소망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29:12). 그들은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29:13).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실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9:14).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9:11).

## 적용 및 실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댓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거부했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는 커녕, 그들은 예레미야를 꾸짖고 때리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쉬운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바벨론 유수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배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에 달려 있다. 그 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비록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항상 심판이다. 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질문

1. 사로잡힌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했는가?
2. 예레미야의 장점은 무엇인가?
3. 사로잡힌 자들은 왜 바벨론의 정복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꺼려했는가?

4. 당신은 왜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가? 당신의 염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5.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 참고

###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 의해 재건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그는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정복한 후 앗수르 제국을 멸망시켰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쉬 전쟁에서 이집트를 멸망시킨 후 유다를 점령했다. 10년 이상을 섭정왕들을 세워 유다를 지배한 느부갓네살은 결국 주전 586년에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다. 외부의 적들을 정복한 후 그는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 바벨론 시를 새롭게 단장했으며, 요새들을 만들고, 장엄한 문들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궁전을 세웠다. 그는 또한 이 궁전의 마당에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는 “공중 정원”(hanging garden)을 만들었다. 느부갓네살이 43년간(주전 604-562) 번영 가운데 통치를 한 후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에월므로닥이 왕위를 잇는다(왕하 25:27).

### 사례 연구

2년간 담임 목사님이 없는 공백기를 거친 후에 청빙 위원회에서 후보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 후보가 설교를 한 후에 교회는 그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고, 한 달 후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설교와 여러 면에서 달랐다. 이때 그의 주장과 약속들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끝]

<b>제 8 과</b>	<b>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다니엘 6 장</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다니엘 6 장</p>	<p><b>학습주제</b>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신했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압력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압력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다.</p>

**짧은 요약**

다니엘은 타협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거룩한 습관들을 가졌다. 거짓된 고소를 당했을 때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 훈련 덕분이다.

팀 파론은 (Tim Farron) 십대에 영국의 자유 민주당원이 되었다. 2017년 6월에 그는 당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2년 후에 사임을 하였다. 그의 사임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적 리더가 된다는 것, 특히 2017년에 진보적인 자유당의 리더가 된다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 . . 나의 믿음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sup>2</sup>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신앙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모욕을 당한 어떤 공적 인물이든, 예수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인해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대학 교수이든 간에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발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사실상, 점점 강해져가는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자신의 신앙에 충실함으로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루어야 하는 형벌이 실적이 아니라, 사형이었다. 다니엘은 세상 문화에 굴복하기 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충실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죄목은 하나님께 하루에 세번씩 기도한 것이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대부분을 포로기에 살았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강제 추방은 그가 십대일 때 시작되었다. 그의 명석함과 총명함, 그리고 건강한 육체 때문에 그는 첫번째 추방자의 명단에 올랐다.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원했다. 그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려 했던 것이다.

다니엘이 게으르고 산만한 사람이었다면, 것처럼 존경할만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건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또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했으며, 성실하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과 믿음이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후에 그의 삶에 큰 도전과 구원을 가져왔다.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와 다른 사람들이 처형되는 위험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는 또한 이 공로로 인해 궁정에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sup>2</sup> <http://www.christianitytoday.com/news/channel/utilities/print.html?type=article&id=138925> (Accessed 1/20/18).

하지만, 이러한 은사로 인해서 그는 능력이 부족한 다른 동료들의 불타는 질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은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는 왕국의 포로가 된다. 이 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 당시 왕은 메대의 다리오였다.

### **어떻게 좋은 사람을 끌어 내릴 것인가? (6:1-5)**

거짓된 고소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무력한 지도자와 도덕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이 매우 뛰어난 행정가,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강한 음모이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표출된다. 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다리오가 짧은 기간 통치했다는 것 외에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는 바사의 고레스가 통치하기 바로 직전에 통치했던 사람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리오와 고레스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성전과 삶의 재건을 약속한 왕이다. 70 년에 걸친 바벨론 유수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 시기를 모두 경험했다. 따라서, 이러한 대결이 일어날 때에 다니엘은 이미 80 대의 노인이었다.

다리오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120 명의 총독들을 임명하여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총독은 한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다리오는 또한 120 명의 총독들 위에 3 명의 총리들을 임명하였다. 다니엘은 이 세 사람 중 하나였다. 다니엘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기에 다리오는 그에게 모든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다니엘의 명성은 점점 높아갔다.

다니엘이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충성 때문이다. 그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아래에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으며, 또한 새로운 왕국의 지배자인 다리오에게도 동일한 신임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무너뜨릴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어떤 계락을 꾸미는가? 그들은 그를 무너뜨릴 함정을 팠다.

### **무죄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법을 만들다 (6:6-9)**

총독들과 총리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다니엘을 고소할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 따라서, 다니엘을 시기한 동료들은 다니엘의 가장 큰 강점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곤궁에 빠뜨릴 법을 만들었다.

다리오의 이 뜻에 쉽게 빠져 들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적인 능력도 미약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리오의 당시 대부분의 왕들처럼 거만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신하들의 표하는 경의가 이러한 그의 자아를 한껏 더 부풀게 했을 것이다. 다리오가 이러한 법령을 인정함으로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려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그는 그것을 만든 이들의 동기를 조사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지도자들의 무리는 왕에게 먼저 아침을 아끼지 않았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6:6). 그들이 거짓으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자 한다고 했을 때에 다리오의 당연히 다니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왕은 다니엘이 총성된 총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의 종교적 의무나 관행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는 그들의 작전은 성공을 했고 다리오의 법령을 발표했다. 법령이 발표된 후 삼십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한 것이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은 이 장에 세번 등장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전통적으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 만들어진 규례는 고칠 수가 없었다. 이 명령은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수있다. 왕후 와스디는 술취한 신하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아하수세로 왕은 법령을 내려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함으로 왕후 와스디가 그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 하도록 선포했다 (에스더 1:19).

### 국가에 대한 불순종인가 아니면 거룩한 순종인가? (6:10-16)

다니엘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방이 있는 윗층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변경할 수 없는 법령을 들은 후에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었다. 다니엘이 명령에 즉시 불순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반역적인 태도는 다니엘의 흠 잡을 것이 없는 성품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범하지 않을 적극적인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생략하고 싶지 않은 적극적인 의무의 문제이다.”<sup>3</sup>

<sup>3</sup> Joyce G. Baldwin, *Dan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8), 126.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다니엘의 경우 세상의 법에 반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충실하기를 선택했으며, 또한 그의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될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 2500 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은 미숙한 고자질쟁이 처럼 보인다. 11 절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라는 구절은 여러모로 통탄할 일이다. 그들은 사생활 침해만으로도 다니엘을 모욕한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문제로 인해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 고자질한 무리들은 왕에게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하나임을 밝힌다. 다시 말하자면, “왕이시여, 그는 본래 우리 백성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반드시 사자 굴에 집어 넣고 싶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왕은 전면에 나서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발표한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 슬픔 가운데 주저하면서 그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 넣은 것이다. 당시 사자굴은 땅에 넓은 구덩이를 파 놓은 것으로 여기에 형벌받을 사람을 밀어 넣었다. 분명히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으며 그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잠긴 축복의 기원을 하였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6:16).

### 어떤 법이 이기는가? (6:17-28)

인간이 만든 법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들어가게 했다. 하지만, 그가 사자 굴에 들어가자 또 다른 법이 다스리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 보호와 평화, 그리고 은혜의 법이다. 메대와 바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왕궁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 왕은 새벽 동이 트자마자 굴로 달려갔다. 그가 다니엘이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 지는 미지수이다. 그의 질문은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6:20). 왕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을 때에도 동일한 말을 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이 진실로 증명되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습관에 충실하며,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

## 적용 및 실천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다.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를 도전하고 변화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해진 기도와 예배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닻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도전받는다. 이러한 도전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유혹의 형태로 올 것이다. 이 둘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신실한 습관만이 우리에게 탁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이다.

## 질문

1.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꾸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그만 두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거라는 명령을 받아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교회에 출석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2. 다니엘은 당시 문화에 쉽게 어울려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리오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 삼십 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가?
3.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4. 마태복음 5:11-12 을 암송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참고

### 당신을 강하게 만들 영적 훈련들

- 성경 공부 –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 내 삶의 인도함을 받는다.
- 경건의 시간 – 규칙적으로 성경이나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한다.

- 금식 -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절제한다.
- 성찬 -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희생을 기념하여 그 분의 상한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
- 묵상 - 일정 시간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생각하며 보낸다.
- 휴식 - 나의 인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규칙적으로 쉼을 갖는다.
- 안식일 -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쉼을 위해 구별한다.
- 청지기 -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의 관리자로 산다.
- 예배 -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 기도 - 조용하게 그리고 때로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의 듣기와 말하기의 대화를 통해 교제를 갖는다.

### 사례 연구

당신이 한달 동안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문 연구 프로그램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은 당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기로 결정을 할 것이다. 연구 주제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며, 당신은 이미 강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세속적인 모임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일정은 매우 분주하며 위치상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당신 스스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영적 훈련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계획과 연구의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는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끝]

<b>제 9 과</b>	<b>하나님의 구속의 묘사</b>
<p><b>핵심본문</b> 호세아 1,3,14 장</p> <p><b>배경</b> 호세아 1-14 장</p>	<p><b>학습주제</b>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영적 간음에 대해 예증하셨다.</p> <p><b>탐구질문</b> 어떻게 영적 간음을 피할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내 삶의 영적 간음의 여부와 그 결과들을 파악한다.</p>

#### 짧은 요약

이스라엘은 그들 주변 민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예로 들어 그들의 신실치 못함을 심판하시며 그것을 영적 간음에 비유하셨다.

잘 알려진 속담 중에 “결혼식이 지나면 결혼이 온다”는 말이 있다. 결혼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진실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은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한다. 어떤 경우는 참석한 하객들이 새로운 부부를 지원한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혼식과 리셉션, 그리고 하니문은 곧 시들어 버린다. 이제 일상의 삶의 현실이 그들이 맺은 서약의 진실성을 테스트한다. 서약은 더 이상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약에 따라 경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함으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비로소 결혼식이 끝나고 진정한 결혼이 시작된 것이다. 감사하게도 많은 결혼이 계속적으로 가정과 사랑, 서로간의 헌신을 지켜 나가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결혼도 많이 있다.

유혹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처음에는 이러한 유혹이 약하며 이겨낼 수 있는 강도로 올 것이다. 하지만, 곧 한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했던 배우자가 이러한 유혹들에 흔들리게 되며, 신실함과 성실함을 잃게 된다. 결국 결혼식과 리셉션, 그리고 하니문처럼 결혼 자체도 빛을 바래게 되고, 단순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구원의 경험도 결혼과 흡사하다. 처음에는 새로운 신자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인해 불같이 타오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열정이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좌우한다. 결혼처럼 처음에는 유혹이 약하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혹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점령하고 결국 일상의 삶을 집어 삼킨다. 마침내 한때 공동체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제자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도 식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결혼을 비유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20).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 보다, 호세아로 하여금 간음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 배경 (호세아 1)

표면적으로 보기에 8 세기 중엽의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융성하며,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번영의 시대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심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억압을 받았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남유다의 아모스와 함께 열 두명의 소선지자에 해당된다. 불행히도 “소”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종종 해석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 열두 명의 선지자들이 쓴 메시지는 단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의 글보다 그 분량이 짧을 뿐이다. 소선지자들이 쓴 글이 결코 덜 정확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모스의 경우 불의, 빈곤, 억압과 윤리적 가치들에 대해 비난하면서 매우 격렬한 어조를 사용했다. 반면,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예배의 문제들에 대해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두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경배했다. 그들의 주된 신은 비의 신이며 다산을 주는 바알이었다. 그랬기에 바알은 땅의 남편으로 여겨졌으며, 경배의 의식에는 신성한 간음의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예배의 한 행위로서 남자들이 성전의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들의 눈에는 성적 행위가 바알과 땅의 결혼 관계를 보여줌으로 다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종교를 가나안 사람들의 것과 혼합하여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와 바알이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더구나, 송아지에 대한 경배 또한 이스라엘에 여전히 만연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으며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앗수르가 점점 강성해져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군사적 정치적 혼란이 따랐다. 호세아는 이때 임박한 멸망과 포로생활을 선포했다. 앗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으며, 호세아는 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어쩌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추방시켰을 때에 유다로 피신했을 수도 있다. 호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다.

### **천상의 결혼? (1:1-2:1)**

당신은 아마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셨을 때에 호세아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족과 막대기로 멩에를 만들어 목에 걸도록 지시하셨다 (렘 27:2).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사야 20:2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베옷과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삼년을 지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하지만, 정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란 말인가?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경우일 것이다. 하나님은 곧 호세아에게 그 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호세아는 이미 잘 알고 있으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선명히 알려 주신 것이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1:2).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어서, 스스로가 여호와께 신실치 못했다고 여기지 않았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였다. 우리가 고멜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뿐이다. 그녀는 호세아와 결혼했을 당시 창녀였던 것 같다. 어쩌면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들의 결혼 후에 그녀가 문란한 성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결혼에 관해 너무 많은 추측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음란한 나라 사이의 중요한 관계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이다.

세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첫째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하나님은 가르침의 일환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게 하셨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이다. 이스르엘은 폭력과 전쟁과 피 흘림의 역사로 얼룩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소망을 주셨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공홀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얼마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사랑과 공홀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로암미나 로루하마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고멜은 호세아와의 결혼 기간에 창녀였으며, 태어난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정확히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 추측하건데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을 상징할 수도 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가족에게 얼마나 서글픈 묘사인가! 하지만, 이스라엘과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세아 1:10 은 짧지만 강력한 세 글자의 단어, 곧 "그러나"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며 (창세기 22:17),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절한 아들과 사랑받지 못한 딸은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렘 31:1, 33).

하나님은 결코 소망이 없는 심판을 주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 신실하지 못함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 **속량된 결혼 (호세아 3)**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들의 영적 간음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영원히 결별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노하시고 상심하셨지만 (호 2:1-

13), 또한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분노보다 더 컸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2:14).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그의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행동을 하도록 하셨다. 호세아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고멜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의 간음한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진 빚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형태의 간음이든지 간음한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댓가가 있다. 성적 간음 뿐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안전을 다른 곳에서 보장 받으려는 행위 또한 지불해야 할 댓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결혼의 조건이 이번에는 달랐다.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경계를 정하고 규칙을 주었다. 대신에 그도 그녀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다. 그들은 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과 잘못된 충성을 포기해야만 했다. 돌이켜 보건데,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게 되는 데, 이때 그들에게 엄격한 경계와 규칙이 주어졌다. 하지만, 포로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3:5)고 약속하신다.

### **회복된 결혼 (호세아 14)**

우리는 구속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2 절 말씀은 아름답고도 실천적인 지시를 우리에게 준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14:2 전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구속과 회복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것이 없는 화해는 불완전하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의 고집과 용서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도록 권면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14:2 후반)

하나님은 “이슬, 백합화, 감람 나무, 개화, 향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원을 비유로 그분의 용서를 묘사하셨다. 호세아의 뼈아픈 메시지도 또한 이런 아름다운 비유들을 통한 위로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14:9). 그들은 미래에 지혜와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영적 간음이란 표현은 강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죄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자격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의 첫 걸음이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수단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민 문제, 성적 논쟁, 인종간의 증오 등의 정치적 이슈들; 용서하지 못함, 험담, 판단 등의 관계적 이슈들; 빈곤, 가난, 노숙자 문제 등의 경제적 이슈들.

하나님보다 이러한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일종의 영적 간음이 될 수 있다. 최악된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신실치 못함으로 인한 생기는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1. 영적 간음은 단지 구약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야고보서 4:4 을 보라: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어떤 면에서 당신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가?
2.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방식들 사이에 양 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이러한 진실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가?
4.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생각해보라: 요한일서 2:15-17; 계시록 2:1-7; 야고보서 4:1-10. 이 중에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
5. 누군가 당신과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가? 당신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참고

### 그들이 섬긴 우상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우리처럼 다원적인 사회에 살았다. 그들의 우상은 아마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나무, 돌, 금과 은 등으로 만들어졌다. 구약 시대의 중요한 거짓 신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스다롯 (Ashtoreth) – 다산과 모성의 여신 (가나안 족속)
- 바알 (Baal) – 태양 신 또는 폭풍의 신; 농작물과 여인들의 다산을 주관하는 신 (가나안 족속)
- 다곤 (Dagon) – 물과 곡물의 신(블레셋 족속)
- 마르둑 (Marduk) – 다산과 채소의 신 (바벨론)
- 밀곰 (Milcom) – 점, 오컬트 (암몬 족속)

전쟁에서 지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그림들은 전리품으로 빼앗겼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의 금 송아지가 앗수르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호세아 10:5, 6). 빼앗긴 우상들은 귀금속과 보석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 정복자는 정복된 민족을 멸시하고 욕보이기 위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분해하여 금, 은, 다른 보석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부서 뜨리거나 불태우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였다.

## [끝]

<b>제 10 과</b>	<b>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b>
<p><b>핵심본문</b> 마가복음 9:14-29</p> <p><b>배경</b> 마가복음 9:1-29</p>	<p><b>학습주제</b> 예수님이 소년을 악한 영에서 구원하셨다.</p> <p><b>탐구질문</b> 어떻게 우리는 불신을 극복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나의 불신을 극복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p>

### 짧은 요약

산 정상의 경험 밑에는 실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말다툼, 의심, 귀신 들림, 두려움. 예수님은 그 장면 안으로 들어오셨고 한 소년과 그의 아버지를 구원하셨다.

신앙 고백은 주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목록이나 서술로 표현된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신앙고백문일 것이다. 심지어 신조적 교단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침례교인들도 침례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세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고통가운데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우리가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내용은 없어도 우리의 일상에서 "불신"의 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불신은 우리의 가치나 철학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의 체계는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신뢰는 믿음의 체계 안으로 생명을 불어 넣는다. 신뢰는 "믿는 것"을 "받는 것"으로 바꾼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유명한 고백을 바꿀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위기는 우리를 도전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깨어진 관계로부터 구원해주실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내가 이 특정한 일에 대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확신시켜준다.

### 머릿말 (9:2-13)

우리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여정 안에서 적어도 한번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본 경험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컨퍼런스, 수련회, 부흥회 혹은 개인적인 관문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다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계곡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 핵심 멤버였다. 예수님은 12 명의 사람들과 삼 년의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함께 먹고, 그들의 집에 갔으며, 함께 여행하고, 그들의 눈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핵심 멤버들을 모으셨던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부름 받은 세 명의 제자들이었다 (막 14:32-33).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이 세 명만을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하셨다 (눅 8:51).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은 예수님이 그들을 엘리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청중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을 은밀하게 증거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의 놀라움은 차고 넘쳤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9:7)라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들이 천천히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예수님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했다.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 영적 경험에 대해 혼돈스럽고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할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화가난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

### **실패한 능력 (9:14-18)**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지 않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 리더들이 없는 동안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임무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얼마 전 예수님은 열 두 제자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눅 9:1-2).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셨었다. 아마도 고통받던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함께 나타나 고쳐주기를 간구하자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것이다.

당신은 율법 교사들이 이 일을 정확하게 뭐라고 비판했는지 궁금한가? 제자들의 방법, 권세의 결핍, 아니면 그냥 그들의 실패였을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당히 큰 동요가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빨리 돌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진정한 능력이 무기력한 상황을 통과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께 달려갔다. 성경은 그들이 "즉시 심히 놀랐다" (9:15)라고 말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기적 후에 그 분은 달라 보였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다" (9:29)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얼굴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연상시켰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지 깨닫지 못했다" (출 32:29).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 안에 들어오시고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한숨을 지으실만 하셨다. 결심한 아버지는 즉시 큰 소리로 그가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달라고 그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실패한 믿음 (9:19-24)**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불만을 주목하게 된다. 이 사건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이다.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불만을 말씀하시면서 "너 믿음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9:19) 라고 하셨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에게 이야기 했는지 알지 못한다. 거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다. 제자들,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율법 교사들인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은 그 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그들의 믿음의 결핍은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이 계속 고통받고 치유를 바라며 서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십대이거나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때부터 이 영에 의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간질병 증상을 묘사했다. 그것이 그 소년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고, 넘어지며 이를 갈고 가혹하게 만들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이것을 간질병이라 했고, 마가와 누가는 어떤 영이라고 불렀다.

이런 단어들 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만성적이거나 불치병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는 이런 종류의 질병을 괴물같은 악한 영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뭐라고 명명하든간에 한 아이의 인생을 파멸시킨다. 나는 이 아들의 문제를 간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전에 귀신을 쫓은 적이 있으셨는데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듯 했다.

이 젊은 청년은 늑대의 입에 있는 험겁 인형 같았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 보았을때 그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땅으로 내리쳤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일이 아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는 슬펐다. 이제 그의 아들은 악한 영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가 예수님께 악한 영이 죽이기 위해 그의 아들이 어렸을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넘어뜨렸다는 것을 말했을때 당신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괴로움을 들었을 것이다. 아들을 항상 돌봐야 했던 이 아버지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아라. 이 아버지는 헌신되었고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했다. 제자들에게 의해 침체되고 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저에게 자비를 베풀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9:22).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이라니?" 하며 급히 질문과 같은 도전을 던지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된 말씀을 선언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9:23, NIV 2011). 재빨리 그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9:24)라고 말했다. 이 말은 갈등 중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구절 안에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망설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도 그 분이 등을 돌리지 않으실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우리가 원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과 주권을 포함한다. 후자는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

### **회복된 능력과 믿음 (9:25-27)**

사단은 쉽게 혹은 마지막 공격 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은 마치 그 소년의 몸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귀신의 떠남은 너무나 잔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소년은 죽었다. 그의 옛 모습, 공포스러운 삶의 위험, 굴욕과 수치에 대해서 죽었다.

아름다운 공황 속에 예수님은 그분의 손으로 소년을 잡아 일어서도록 도와주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하지만 그 청년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들 모두는 밝은 미래를 보았다.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셨다.

### **끝맺음 말** (9:28-29)

극적으로 귀신을 대면했던 내용 후에 조용한 정적이 흐르며 제자들은 겸손히 예수님께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우리들이 그들의 실패를 조롱했을 때 그들이 당했을 부끄러움을 상상해보라.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제자가 되기를 더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기를 소망한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 **오늘을 위한 적용**

두 종류의 의심이 있다. 주먹을 꽉 쥐는 의심과 마음을 살피는 의심이 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두 가지 의심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진정으로 발전되는 관계 안에는 주고 받는 것, 신뢰와 불신의 인식, 불안정함과 섞여 있는 안정감이 포함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를 것이 없다. 약함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전, 관대함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곧장 달려가게 한다.

이번 주 본문 안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들 안에 있던 내적 분란이나 귀신을 쫓아 내려했던 연약한 시도들, 아니면 귀신 자체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치유와 구원을 간구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의 근육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의 조롱이 우리의 믿음을 저지하게 허락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적들에게로 함몰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구원을 위한 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

### **질문**

1.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영광을 경험했다. 그들이 실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망? 분노? 체념? 권한?

2.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선포하신 다른 사건들을 보기 위해 다음의 본문들을 읽어라: 마태복음 19:26; 마가복음 10:27; 누가복음 1:37
3. 인생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는가? 당신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다른 일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삶 속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가?
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실망감 속에 있는 제자들과 연관성이 있는가? 당신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5. 일주일 동안 "의심의 일기"를 적어보아라. 하나님을 믿었던 때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 때를 기록하라. 그 의심들을 미래의 신앙 고백과 힘을 위한 기도로 만들어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한 때는 의심했던 사람들이다.

-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의심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을 의심했다.

- 엘리야는 크게 낙담했고 진정한 종교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 이사야의 죄는 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그를 압도했다.

- 마리아는 처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의심했다. 그녀의 첫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 모든 제자들은(여러번) 의심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십자가 사건때에 모두를 도망가게 만들었다.

## 참고

### 사례 연구

당신의 동료가 음란물 중독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믿음 안에 있는 강한 리더로 보고 있다. 그녀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불안정하다. 그녀는 도움을 위한 간절한 요청으로 당신에게 죄를 고백했다. 당신은 그녀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떻게 돕겠는가? 오늘 내용 중 어떤 말씀을 그녀에게 전달하겠는가?

### [끝]

<p><b>제 11 과</b></p>	<p><b>영적 거듭남의 필요성</b></p>
<p><b>핵심본문</b> 요한복음 3:1-21 절</p> <p><b>배경</b> 요한복음 3 장</p>	<p><b>학습주제</b>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구속을 위해 영적 거듭남이 필요하다.</p> <p><b>탐구질문</b>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p> <p><b>학습목표</b>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복음의 핵심과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을 나타낸다.</p>

**짧은 요약**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복음의 핵심과 영적 거듭남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준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열 두명의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행 4:13)이라고 불렀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한 어부였지만, 다른 종교 리더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써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질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 상류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지도자가 되는 70 명의 산헤드린 멤버 중 한 사람이었다. 로마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산헤드린의 권위는 줄어들었지만 니고데모와 동료들은 여전히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 몇 가지를 바르게 맞춘 니고데모 (요 3:1-2)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 분파 중 하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가장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는 밤 중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가 개인적인 비판을 피하고 싶었음에 틀림이 없다. 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의 세 번째와 마지막 이야기 안에 그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19:39)으로 설명되었다.

니고데모의 말은 아침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사용하는 "랍비"로 인정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동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불렀다. 그와 다른 리더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인기를 주의 깊게 보았다. 니고데모는 진실하게 말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목적이 아침하는 것인지 혹은 그가 정말로 생명에 대한 깊은 대화의 문을 열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토론의 관점을 바꾸셨다.

### 기본적인 필요 (3:3)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대답을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도 포함시키셨다는 것을 알았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 남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위에 서있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자신과 다른 유대인 형제들은 괜찮다고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새로운 선생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을 더 원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셨다.

어떤 진리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게 되어있다. (동정녀의 출산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의 삶을 깨닫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것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3:4-15)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된 니고데모의 첫 번째 반응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도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육적인 출생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참 본질이 되는 영혼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셨다.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같은 것을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다." 두 가지 출생은 대조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육적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골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영(바람)이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에스겔 37 장 1-14 절 말씀에 익숙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을 주시는 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이 가능하도록 하신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믿음의 반응은 15절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예식을 따르며,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고백하는 전통에 푹 빠져있었다. 그 선입견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람의 움직임에 비유하셨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바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거듭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의 비유는 신비스럽고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거듭나는 체험 속에 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회심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진보적이고 성장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다. 두 종류의 회심 모두 하나님의 영의 바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우리 중 대부분도 종종 질문을 했었다.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답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이나 모든 믿음의 신비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나 교육의 결핍 혹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지식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3 장 11 절은 대명사가 복수인 흥미로운 전환점을 가진다. 이것은 니고데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으로는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그가 속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는 더 큰 공동체를 대표했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선생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의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권위를 위한 그 분의 자격을 말씀해주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특별하게 여겼던(3:2) 그 분의 말과 행한 것을 가리키셨다. 니고데모는 궁금했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고, 그의 동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영적이고 개인적인 주제로 깊어지면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분의 정체성과 하늘의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그 분의 궁극적인 권위를 나타냈다. 누구도 하나님의 충만함과 관계를 갖지 못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생님”이셨다.

14 절과 15 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었다. 예수님은 모세의 체험과 그의 사명을 비교하셨다 (민수기 24:4-9). 모세는 구리뱀을 들어올림으로써 출애굽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치유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인자가 반드시 들려올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주 스스로를 밝히실 때 사용하신 구약적 표현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치유를 베풀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들은 십자가에 들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 그때만 해도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3:16-21)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 장 16 절은 “작은 성경”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가질 수 없을 때 요한복음 3 장 16 절이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에게 제안하도록 인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요한복음 3 장 16 절 같이 풍성한 의미와 감탄을 담고 있는 구절은 많지 않다.

옛 찬송가와 로마서 10 장 13 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거나 특정한 인종, 국가 혹은 계층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 분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벧후 3:9).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분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거듭남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위한 기반이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10 절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모두를 언급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 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무능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와 궁극적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껍질을 벗기거나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죄와 불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을 필요로 하셨다(로마서 6:17-18, 23 절을 보아라). 요한복음 3장 17 절에 계시된대로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받은 것에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도덕성과 인생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오늘과 영원한 삶에 맞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 성장, 의미있는 섬김, 즐거운 체험, 인생 자체를 다루는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시작시킨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체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때 그의 마음 안에 품으신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자주 비교되고 있다. 보통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킬때 사용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요 8:12). 그는 빛이시고 빛과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9 절에서 말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빛과 생명의 길을 무시한채 그들이 행하는 악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은 진리를 영접하거나 그 빛 안에 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우리도 거듭난 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요 1:12).

## 적용 및 실천

열 아홉살일때 나는 플로리다 파나마 시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팀은 두 사람이 다리 근처에서 물에 빠져가는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두 사람 모두 수영을 할 줄 몰랐다. 우리와 몇 사람들이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우리는 해변가로 한 사람을 끌어왔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먼저 죄가 다뤄져야 했다. 왜냐하면 죄는 일찍이 에덴에서부터 치명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며 나쁜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를 위한 용서, 현재를 위한 사랑,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망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안으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안으로 믿는 자들을 맞아주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 (고후 5:18).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돕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질문

1. 거듭남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2. 만약 당신의 목사님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가?
3.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4. 당신에게 니고데모를 생각나게 하는 힘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5.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6. 요한복음 3장 16 절은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당신은 어떤 길을 취하고 있는가? 당신의 이웃들을 어떤가?

## 참고

### 거듭남

많은 번역본들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로부터 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혹은 *영적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더 높은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적 거듭남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알아본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1:1-18):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삶에 관한 하나님의 재편성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다른 렌즈를 통해 보는 특별한 사람이다.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은 감각을 만든다. 우리는 사람들과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 **로버트 엠멧 블렛소 베일러 판사(1793-1873)**

베일러 대학의 설립자는 그의 본적 켄터키와 훗날 알라바마가 되는 곳에서 성공한 변호사요 정치인이었다. 1839년 회심 후에 그는 자신의 사법적이고 법률적인 직업과 복음 전파를 위해 알라바마에서 텍사스로 이주했다. 그는 1845년 베일러 대학의 설립을 인도했다. 오늘날 베일러 대학은 침례 기독교의 유산과 함께 뛰어난 교육 기관이 되었다.

만약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46세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베일러 대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회심은 언제나 파급 효과를 만든다.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끝]

제 12 과	기적적인 탈출
<p><b>핵심본문</b> 사도행전 12:1-19 절</p> <p><b>배경</b> 사도행전 12 장</p>	<p><b>학습주제</b>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다.</p> <p><b>탐구질문</b> 최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으로 놀란 적이 언제인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러 방법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p>

### 짧은 요약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보았다. 사도행전 12 장은 초대교회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때 영화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기도문 안에서 특별하게 사용된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구원)주소시고"(마 6:13)라는 표현을 떠올린다. 이 간청은 유혹의 때와 시험이 오는 것을 아는 기도가 된다. 또한 그것들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인도하실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된다. 초대 교회는 기도했고 사도는 안전하게 구원되어 그의 동료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과 재회했다.

### 초대교회의 핍박(12:1-4)

종교적 차별과 핍박은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 헌법이 점진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지지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행해져야 하는지에는 일치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이 상태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 어떤 미국인들은 그들의 신앙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가 참아낸 차별과 비교할 정도는 못된다.

사도행전 12 장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 신선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반대자들이 사랑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죽였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처형시켰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위에 있었고 두 살 이하의 아이들 중 한 명이 훗날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베들레헴에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다(마 2:16). 그의 손자 또 다른 살인자 헤롯이 왕위에 올랐다.

헤롯 왕들의 충성심은 우선적으로 로마에게 있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그들은 유대교 리더들과 협력하기 위해 그들의 비유를 맞췄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움직임은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했다. 하지만 야고보의 죽음은 그들을 기쁘게 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그리고 정권을 잡은 헤롯에게)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그들은 베드로를 감금시켰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감옥에서 탈출했었기 때문에 사도는 사슬에 묶였고, 삼엄한 경비를 받았다. 유월절 절기 후 헤롯은 그가 야고보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다.

사도행전 12 장은 자유롭게 설교하는 시몬 베드로, 벌레에게 먹히는 헤롯의 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다른 야고보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 반대와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행 12:24).

### 교회가 기도할때(12:5)

먼저, 기도는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한 교회의 능력을 설명한다.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직면했을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고보는 처형당했다. 교회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회는 기도했다. 야고보는 죽었다. 교회는 기도했다. 베드로는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교회는 계속 기도했다.

어떤 슬퍼하던 딸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기적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한 다음의 내용을 명심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었다는 사실이다. 슬퍼하는 딸의 아버지는 전역한 군인이며 은퇴한 긴급 구조원이었다. 그는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빌 4:19). 비록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롬 8:28).

기도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것은 아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게 된 이유는 흥미로운 추측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모든 "이유"와 "만약"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한 가지 답변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더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놓여있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악을 일으키시거나 용납하시지는 않는다.

야고보는 이 땅의 핍박을 떠나 천국의 더 없는 행복을 경험했다. 그것이 그에게 나쁜 일이 있었을까? 그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슬퍼했다. 그러나 그들은 닥쳐오는 어떤 일에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네로 황제의 손에 죽게 될 때까지(요 21:18-19 절을 보라)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는 살아 남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

기도는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 안에 마음과 믿음을 넣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간청해야 한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한 많은 예들을 가지고 있다.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기도의 실패는 하나님을 제한 시킨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계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언제나 채워주신다.

### 시몬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12:6-11)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긴장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핍박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셨다 (마 14:29-31).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위협을 받았다(행 4:1-22). 베드로는 핍박을 경험했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반대 세력을 보았다. 그의 의식 속에는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그를 압도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평안했다. 그는 천사가 그를 깨우기 위해 옆구리를 쳐야 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잠들었다.

누가는 흥미로운 내용들은 제공해주었다. 베드로의 팔에서 사슬이 벗겨졌다. 군인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과 신발을 입으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뚜렷한 환상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큰 철문이 열렸고 천사가 베드로는 떠나기 전 그들은 성읍의 긴 길을 따라 걸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헤롯과 유대 핍박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았다.

### 시몬 베드로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난다(12:12-19)

베드로는 길 중앙에 홀로 서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마리아와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익숙한 장소였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을 확신했다. 서로를 도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 문에서 노크한 것을 보면 마리아의 집은 분명 넓었을 것이다. 모인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다. 로데라는 한 여종이 노크 소리에 응답했으나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그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말하기 위해 뛰어갔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로데가 정신이 나갔거나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로데는 사람들에게 계속 간청했다. 잠시 후 사람들은 문쪽으로 갔고 베드로의 등장으로 놀라게 되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의 구원에 대해 말해달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일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써 사도행전 후반부에 여러 번 등장한다.

일부는 그 때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하는 삶에 대해 질문한다.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을 때 놀랐다. 왜 놀랐을까?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한 그들의 슬픔이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게 했을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일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믿었을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좋지 않는 기도의 습관에 빠질 수 있음을 안다. 좋은 소식은 베드로가 살았다는 것이다. 그의 등장과 간증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었다.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성읍의 길 위에 있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정확하게 생각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아마도 헤롯의 군인들과 유대 동조자들이 그를 찾고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도의 친구들에게 보고한 뒤 "그는 다른 장소로 떠났다." 베드로는 친구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등장으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누가도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핍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건과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들 사이의 기간을 계속 질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누가는 베드로의 사라짐과 관련하여 군인들 사이에 "작은 소동도 없었다"고 기록했다. 헤롯은 그를 찾기 위해 명령을 내렸다. 탐색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헤롯은 자기 자신과 권리의 정당성을 지켜냈고 군인들을 죽였다. 얼마 후에 헤롯이 가이사라를 방문할때 그는 안과 밖으로 벌레에 먹히게 되었다(행 12:23).

사도행전 12 장은 핍박과 나쁜 소식으로 시작한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해야 한다. 악은 잠시동안 자신의 길을 가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행 12:24)라고 기록했다.

### 적용 하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은 초대 교회에게 용기를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교회가 기도했을 때 야고보는 죽었다. 시몬 베드로는 다음 희생자로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원과 베드로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악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때 찾아온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일을 만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우리를 높여주었던 경험이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거센 폭풍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해주었던 때가 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갔지만 통과했다. 우리는 핍박과 비방을 참아냈다. 관계의 애통을 경험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확실히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구원 뒤에 함께 계셨다. 우리는 견고해지고 구원되었던 순간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더 쓰라린) 결과로 나가는 것을 보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

### 질문

1.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범죄라면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는가?
3. 만약 교회 안에 섬기는 모임을 증진시키려 한다면 어떤 분야를 언급하고 싶은가?
4. 어떻게 개인의 경건한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
5. 어떻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될 수 있겠는가?

6. 어떻게 학생들이 삶 속에 소망과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단체나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 참고

### 헤롯 왕조

헤롯 왕조는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로마 통치를 감독했다. 헤롯 대왕이 가장 유명한 통치자였다. 그는 여러 장소에 건물을 확장하도록 명령했는데 화려하게 장식된 궁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했다. 그는 자기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는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왕조를 계속 이어갔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왕위에 올라 침례 요한을 죽였다(마 14:1-12). 훗날 안티파스는 십자가 처형 이전에 예수님을 심문했다.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야고보를 죽이는 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체포하는 일을 명령했다. 신적인 존경을 받은 후 사도행전 12 장 20-23 절의 기록에 따라 아그립바는 죽었다. 바울은 아그립바의 후계자와 아들, 가이사라의 헤롯 아그립바 2 세 앞에 섰다(행 25:13-26:32). 헤롯 왕조의 모든 7 대 왕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악하게 지배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던 악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 [끝]

제 13 과	구원을 위한 간청
<p><b>핵심본문</b> 빌레몬서</p> <p><b>배경</b> 빌레몬서</p>	<p><b>학습주제</b> 바울이 그의 친구 오네시모의 구원과 회복을 요청했다.</p> <p><b>탐구질문</b> 구원과 회복을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p> <p><b>학습목표</b> 구원과 회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p>

### 짧은 요약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큰 조력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안의 형제로써 처벌없이 그를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했다.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 장 11 절도 같은 진리를 반복하고 있다. 바울이 쉽게 이 진리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와 함께 성장했다. 본문 구절은 인간의 한계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게 하는 높은 수위표가 된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쓴 것 중 유일하게 개인적이며 사적인 편지이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공동 헌신과 그리스도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옛 장벽과 차이를 제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써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품으며 돕는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변호한다.

### **빌레몬: 소중한 친구요 동역자(1-7)**

빌레몬은 바울의 검증된 친구요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다. 그의 집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였다. 이 편지의 인사말과 맺음말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동료 교인들에게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디모데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특별한 사람을 위한 변호자가 되기로 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형적인 인사를 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전형적인 헬라식 인사말이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인 *shalom*이다. 이 두 단어는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와 관련이 있다. 그것의 순서와 용법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 순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즐거워한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이다. 특별히 바울은 은혜에 호소하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바울은 빌레몬의 덕목과 장점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빌레몬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다:

소중한 친구

동역자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일으키는 사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누는 자

그를 섬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기쁨  
위로자  
그리스도안의 형제  
주변에서 생기를 주는 사람  
아마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재정을 돕는자(13 절)  
사역을 위한 바울의 협력자(17 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천국 같지만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다. 빌레몬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경험할때, 이런 성품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 **변호자 바울 (8-9)**

변호자는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일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변호자는 오늘 공개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거나 추천서를 쓰고 있다. 변호자는 공개적으로 보여지며 용감하다. 개인적이며 열정적일 수 있다. 바울은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렸다. 그는 단체들과 개인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섰다.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써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빌레몬을 격려하며 오네시모의 행복을 변호했다.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울과 논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다.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 적어도 빌레몬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믿었다. 바울은 사랑에 근거하여 빌레몬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한 빌레몬에게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혔음을 서술했다. 비록 그가 로마 감옥의 죄수였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며 그분의 주권아래 있음을 보았다.

### **오네시모: 바울의 아들 곧 그의 마음(10-16)**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을 위해 유용한 사람이었음을 밝히며 단어가 가진 뜻을 사용했다. 그는 이전에 빌레몬을 돕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망간 노예가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다시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동료들이 골로새를 여행할 때 그들을 통해 오네시모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강한 추측일 뿐이지만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인정될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오네시모가 도망가기 전에 빌레몬과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골로새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고 모두 하나다라는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다(골 3:11). 그의 떠남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만약 그것이 사실일 경우 빌레몬에게 빚을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를 징벌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 자신의 재정을 사용할 용의가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마 6:20) 좋은 방법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친구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오네시모는 친구요 바울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바울은 사역 안에서 그를 아들로 여겼고 아주 가깝게 “나의 마음”이라 했다. 모든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몇 명만이 그렇다. 친구들이 당신에게 가족이 되었다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어떤 우정은 평생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친구라는 단어로 묘사하셨다(요 15:15).

### **바울의 요청 (17-25)**

바울의 요청이 편지 안에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직접 만나게 하는 그 편지를 들고 찾아갔다. 바울은 “오네시모는 자유인이고 나와 함께 지냅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바울은 구약에 도망간 노예에 대한 율법을 적용하며 로마에 오네시모를 숨겨둘 수도 있었다. 그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신 23:15-16).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나 구약의 전통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으로 그의 요청을 만들어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분명 빌레몬은 이전에 바울의 조력자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왔던 빌레몬의 역할을 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람을 위한 자유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또한 사랑은 사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정보를 준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동기과 함께 빌레몬이 반응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떠남이 더 큰 그림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노예이며 비기독교인으로 떠났지만 바울의 삶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다.

사도는 형제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주는 소망으로 오네시모를 기꺼이 보내주었다.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여겨 주기를 기대했다. 바울은 그것에 동의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도 동의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원했다.

바울은 그의 요청을 다음과 같이 확장했다. “당신이 나를 환영하듯이 그를 환영해 주십시오.” 바울의 요청은 훨씬 더 개인적이 되었다. 그는 도망간 노예 때문에 빌레몬에게 발생했을 손해를 갚아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요청을 취했다. “빌레몬,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이 시점에서 바울의 요청 안에 반짝거리는 유머가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이며 개인적인 삶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요청했다. 바울의 목표는 응벌없이 형제로써 오네시모가 다시 받아들여 지는 것이었다. 아마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빌레몬이 바울을 돕기 위해 오네시모를 다시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빌레몬은 그 분명한 의도를 놓칠 수 없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변호는 빌레몬이 옳을 일을 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 바울의 확신은 십 리를 더 가줘야 하는 사람(마 5:41) 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 보통 사람은 옳은 것을 행하는 의무감 때문에 오 리를 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십 리를 간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요청을 잘 들어줄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내 방을 준비하라, 나는 당신을 보기 위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역사를 함께 이뤄갈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했다. 그것은 그 당시 모든 문화와 법에 도전하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받는 도망간 노예를 다시 받아들여 주시오.

1 세기에 죽은 이그나티우스는 몇몇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그는 감독 혹은 목사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유용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추천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오늘 말씀 안에 언급된 그 오네시모인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그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역할을 했던 바울과 빌레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을 위한 투자와 변호는 유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만약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가 바울이 말한 오네시모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감독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의 운동에 특별한 역할을 했던 그 이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빌레몬서는 의도적인 기도로 끝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 지어다.”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수용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

## 적용 및 실천

*회묵하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하나되게 하시고자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 치유가 필요한 관계가 있는가? 변화 가운데 화해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주변을 돌아보아라. 바울 같은 사람이 돕기 위해 있을 것이다.

*변호자가 되어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각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장애물과 관습을 뛰어넘는 부담을 감수했다. 당신도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게 하라.

개인 한 두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한 의도를 구체화 시켜라.

*감사하라.*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 볼 때, 당신을 위해 누가 서 있었는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질문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관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라. 누군가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라.

## 질문

1. 왜 변호가 중요한가?
2.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려운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본적이 있는가?
3.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가 사람이나 단체를 하나되게 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4. 다음 중에서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5. 편지 안에 언급된 빌레몬의 자질 중에서 당신이 삶 속에 계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6. 나라 안의 인종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는 연관된 개인과 단체를 위한 하나님의 관점을 찾을 수 있을까?

## 참고

###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미국 안에 150년 이상 합법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죄악된 노예 제도를 행하고 용납했던 역사적 기간의 영향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1 세기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노예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 노예 제도는 인종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신약 시대에 노예제도는 현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60 만명의 노예가 살았다고 추정한다. 노예제도는 경제적인 수단이었지 인종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고, 노예를 둔 주인이었을 것이다. 도망친 노예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약하게 정죄한 것에 실망한다. 그러나 바울은 잠깐 뜨거웠다가 사라져 버릴 1 세기의 사회적 움직임을 선동하려 하지는 않았다. 바울의 목표는 한 사람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라 해도 삶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구원, 구속, 그리고 회복에 포함된 사람들**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와 관련된 위험들을 찾아 보아라.

장애물을 찾아 보아라.

바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유익과 함께 어떤 보상이 있는지 찾아 보아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며,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는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끝]**